

무작위와 조화의 변증법과 교육적 실천 방향

유은(채운)

목 차

I. 서론

II. 무작위와 조화의 변증법에 관한 교육적 고찰

1. 과학적 접근 - 카오스이론과 근접발달영역, 거울뉴런이론
 - 1) 카오스이론과 근접발달영역, 창조성
 - 2) 거울뉴런이론
2. 사회문화적 접근 - '자연적 성장의 육성'으로서의 문화, 인간발달생태학
 - 1) '자연적 성장의 육성'으로서의 문화
 - 2) 인간발달생태학
3. 종합 및 정리

III. 한국교육과정에 대한 성찰 - 혁신학교 교육과정 실태를 중심으로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점 사항
2. 혁신학교 교육과정 실태 파악
 - 1) 혁신학교 현황
 - 2) 혁신학교의 의미와 학력관
 - 3) 혁신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특징
 - (1) 혁신학교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특징
 - (2) 혁신학교 체제의 특징
 - 4) 혁신학교 교육과정 10년의 성과와 과제
 - (1) 혁신학교 교육과정의 성과
 - (2) 혁신학교 교육과정의 과제 - 지원 요구 사항
3. 한국교육과정에 대한 자기연관성 고찰

IV. 방향 모색

1. 미시체계 - 통합교과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 1) 실험적 모색 - 주제 중심 프로젝트 수업
 - 2) 자유 표현 - 글쓰기와 미적 경험
 - 3) 협력 교육 - 학급자치와 협력학습
2. 중간체계 : 교사-교사, 학생-보호자-교사-지역사회의 연결
 - 1) 교사양성과정과 교사학습공동체 개선
 - 2) 학생-보호자-교사-지역사회의 연결
3. 외체계와 거시체계 : 대학입시제도 개편, 기본소득운동

- 1) 대학입시제도 폐지와 새로운 평가 시스템 구축
- 2) 기본소득운동

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가끔 머리가 터질 거 같이 혼란스럽고, 잃은 지 오래인 인생의 방향을 다시금 찾아보겠다고 선볼리 나섰다가 결국 ‘내 인생 무엇?’과 같은 답 없는 질문에 술로 되받아치게 되는 현재의 시간이 올 때면 즐겨 듣곤 하는 노래가 있다. 바로 요조의 ‘나의 쓸모’라는 노래다. 가사는 이렇다. “사실 내가 별로 이 세상에 필요가 없는데도 이렇게 있는 데에는 어느 밤에 엄마 아빠가 뜨겁게 안아버렸기 때문이에요.”¹⁾ 보호자가 껴안은 몇 번의 밤들 중 어느 밤 한 번의 껴안음이 만들어낸 작은 점의 폭발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이는 생명의 탄생부터 카오스이자 코스모스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태어나고 싶지 않아도 굳이 태어나게 하는 카오스와 코스모스의 장난은 탄생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어디에나 무작위성은 존재하고 어디서나 조화로움은 발생하기에, 무작위와 조화는 늘 공존한다. 한편, 이 공존의 양태는 다양하다. 무작위성이 과도한 사회에서, 개인은 각자도생의 삶으로 파편화되기 쉽다. 또 어떤 사회는 ‘조화(질서)’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개인의 다양한 색채를 억누르기도 한다. 사회는 개인들의 다양성이 끊임없이 살아 움직임으로써 작동함과 동시에, 개인의 총합으로서 이루는 또 다른 색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무작위와 조화는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을까?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공간에서 그 상호작용은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

필자의 노동 현장인 초등학교 교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무작위로 모인 학생들의 집합소라는 점에서, 무작위와 조화의 변증법에 대한 고민을 교육과 연결 지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선, 심광현의 두 논문을 토대로 무작위와 조화의 변증법에 대해 과학적, 사회문화적 해석을 바탕으로 교육과 연관 지어 고찰해보겠다. 이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한 ‘2015 개정 교과교육과정 실행 모니터링 연구’와 ‘혁신학교 교육과정의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교육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오늘날 공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브론펜브렌너의 다수준적 생태학적 체계 틀을 빌려 앞으로 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요조, 나의 쓸모, 2013. 이 노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딱히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 엄마와 생물학적 아빠의 하룻밤 때문’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딱히 이유 없이 태어난 우리인데, 굳이 오늘의 행복을 미뤄가면서까지 하루하루 의미를 찾아 무겁게 살아가야 하는가와, 같은 허무주의에서 비롯한 자유의지를 노래하는 것 같달까.

II. 무작위와 조화의 변증법에 관한 교육적 고찰

1. 과학적 접근 - 카오스이론과 근접발달영역, 거울뉴런이론

1) 카오스이론과 근접발달영역, 창조성

심광현의 두 논문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내용은 카오스 이론과 관련된 부분이다. 필자가 알고자 했던 지점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료한 설명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놀라웠던 것은 이를 비고츠키가 주장한 근접발달영역과 연결 지어 설명한 부분이다. 대학교 시절 스쳐지나가듯 만났던 비고츠키의 교육학에 이렇게 심오하고도 예술적인 통찰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글을 읽으면서 이해한 부분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카오스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오늘날 카오스 이론에서는 질서와 카오스, 결정과 기체, 길든 것과 야생 사이에는 최적점이 있으며, 이 최적점에서 자기조직화라는 강력한 창조적 힘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신해주고 있다(베니어스; 49). 말하자면 무작위적인 것으로 혼란스러워 보이는 자연적 과정 자체에 일정한 조건을 찾아내는 자기조직화 과정이라는 기적적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²⁾

무작위적으로 보이는 자연적 과정 그 자체는 ‘자기조직화 과정’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조화를 이뤘나감으로써 생명을 이룬다. 생명 그 자체가 무작위와 조화 간의 연속적인 ‘티키타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명의 ‘자기조직화 과정’을 더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촉매, 열린 비평형계, 임계점과 상전이, 공진화”³⁾라는 키워드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생명체의 자기촉매는 닫힌회로 내에서 이루어진다. 즉, 생명체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재생산을 촉매하는 능력이 있어 끊임없이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생명체는 열린 비평형계 형태를 취하고 있다. 스스로를 재생산하기 위해 외부 환경으로부터 물질과 에너지를 취함으로써, 내부의 화학적 평형으로부터 이탈하여 먹고 배설한다. 이 때에서야 생명은 유지가 가능해진다.

셋째, 닫혀있으면서도 열려있는 역설의 생명체는 ‘임계점과 상전이’라는 원리를 통해 출현했다. 이는 카우프만이 단추와 실을 가지고 만든 <무작위 그래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단추와 실을 무작위로 연결할 때, 실과 단추의 비율이 0.5가 넘어설 때 갑자기 <거대한 덩어리>를 형성하면서 <상전이⁴⁾>가 나타난다. 한편, 실과 단추의 비율이 1.0을 넘어서게 되면 연결망의 덩어리 크기가 증가하는 속도는 느려진다. 즉, 실과 단추의 비율이 0.5를 넘어설 때와 같이 특정한 임계점을 넘어설 때 물리적 성질은 급격하게 변하고 이때 생명체가 출현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넷째, 생명체 ‘들’은 공진화(共進化)한다. 공진화란 “여러 개의 종(種)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진화하여 가는 일”⁵⁾을 의미한다. 생명체는 닫힌 자기촉매회로를 구성함과 동시에 환경과 열역

2) 심광현, <비고츠키와 공감의 생태학: 근접발달, 카오스 이론, 거울뉴런발달생태학>, 2013, 7쪽.

3) 위의 글, 7쪽.

4) 상전이 : 하나의 상(phase)에서 다른 상으로 변하는 현상. 통계역학적으로 매개 변수를 바꾸는 과정에서 물질적 성질 가운데 일부가 급격하게 변한다.(출처: 나무위키, 위키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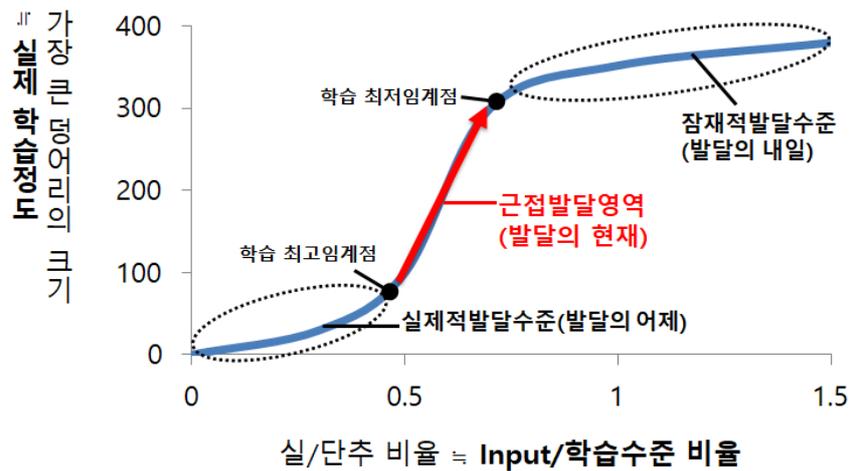
특정 지점(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기존의 상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바뀐다는 것은 무작위로 연결하는 과정 속의 불규칙성에서 규칙성이 발현한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학적으로 열린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다른 생명체들과도 서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로써 생태계는 복잡한 무작위 속의 조화를 이루기에, 생명체들은 처음부터 각기 진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면서 함께 진화해왔다고 할 수 있다.⁶⁾

심광현에 의하면 이러한 기적적인 자기조직화 과정은 인간 개인의 학습과 발달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며, 이는 비고츠키가 주장한 ‘근접발달영역’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근접 발달영역은 학습자가 스스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발달수준’과 아직은 스스로 과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근접 발달영역은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의 거리이다. 실제적 발달 수준은 독립적 문제해결에 의해 결정되고, 잠재적 발달 수준은 성인의 안내 혹은 더 능력 있는 또래들과의 협동을 통한 문제 해결에 의해 결정된다.”⁷⁾

근접발달영역은 카우프만이 만든 <무작위 그래프>와 겹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를 도식화해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카우프만의 <무작위 그래프>를 활용한 근접발달영역 이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습의 최고임계점과 최저임계점의 설정이다. 각 임계점 사이에서만 학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의 최고 임계점>이 <발달의 어제>와 일치하게 되면 학습은 지나친 용이함에 의해 가로막히는 경우가 될 것이다. 반면에 <학습의 최저 임계점>이 너무 높게 되면 학생의 발달의 진전과 성공은 지나치게 큰 학습의 어려움에 가로막히게 될 것이다. 두 경우 모두 근접발달영역 밖에서 일어난다. …… 근접발달은 학습의 최고 임계점과 최저 임계점 사이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교사나 다른 아동과의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 사

5) 네이버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c8071242a8c54e409b0dca4d350776c7>

6) 심광현, 7~9쪽 요약. 요약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남겨본다. 텍스트의 40% 정도 이해한 거 같다. <물질, 생명, 우주>를 듣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 학기에 시간이 되면 물리학 수업을 꼭 들어야겠다.

7) 위의 글, 6쪽 재인용.

이에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아동의 발달은 촉진된다.”⁸⁾

앞서 살펴본 생명의 네 가지 특징을 활용하여 근접발달의 작용 기제를 설명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⁹⁾

생명의 네 가지 특징	<근접발달> 작용 기제	설명
달힌 자기축매 회로	실제적 발달수준	학생은 실제적 발달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주어졌을 경우, 자기축매적인 달힌회로를 통해 혼자서 과제를 해결한다.
열린 열역학계와의 신진대사	협력학습의 상호작용	발달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전개되는 아동과 보호자 등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임계점과 상전이	학습수준의 최적합도 찾기	임계점을 통과하면서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여럿이 할 수는 있는 잠재적 발달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실제적 발달로 전환된다.
공진화하는 생태계	학생과 부모/교사/ 다른 학생의 공진화	“가르치면서 배운다.”

<표 2> 생명 현상의 네 가지 특징을 활용한 비고츠키의 <근접발달> 작용 기제 설명

이에 따라 심광현은 “근접발달의 실제적인 핵심은 <자기축매적 과정을 촉진하는 공진화>라는 의미에서의 <협력학습>에 있다”¹⁰⁾고 정리한다.

더불어, 카오스 이론은 칸트가 말하는 ‘합목적성의 원리’와도 상통한다. “인간은 서로 이질적인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에 동시에 결합되어 있는 ‘역설적’인 존재이다.”¹¹⁾ 이질적인 두 세계의 결합을 추진하는 것은 바로 미적 경험을 통한 판단력의 작용이다. 인간은 각자만의 카메라를 가지고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를 찍고, 상이한 두 세계를 새롭게 해석·결합함으로써 자신만의 새로운 상상의 세계를 구축할 줄 아는 예술가가 될 때 비로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즉, “‘합목적성의 원리’에 따라 기예를 실천하는 능력인 ‘판단력(반성적 판단력과 쾌-불쾌의 감정)’은 ‘합법칙성의 원리’에 따라 자연을 탐구하는 능력인 ‘지성(순수이성과 감각)’과 자유를 삶의 ‘궁극 목적’으로 추구하는 능력인 ‘이성(실천이성과 욕구 능력)’ 사이에서 매개적 위치에 놓여 있다.”¹²⁾

칸트에게 있어 상상의 세계를 창조하는 과정, 즉 인간의 창조성은 “직관(감각)과 개념(오성)이 결합되어야 인식이 가능해지는데 이 양자의 결합, 즉 종합은 상상력에 의해 가능해진다.”¹³⁾ 창조성은 마음의 전체가 역동적으로 뒤섞여 만들어내는 고귀한 산물이자 “비평형적인 무질서에서 질서 잡힌 평형에 도달하는, 생물체가 환경에 적응하며 문제를 해결해가는 창조적인 ‘자기 조직화’ 과정에 해당한다.”¹⁴⁾ 즉 인간의 창의성은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의 불확실성 또는 불안정성이라는 무질서의 기제 속에서 일정한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해답을 찾아내는 과정인 것이다.

8) 위의 글, 6~7쪽.

9) 위의 글, 10쪽 아래 표로 요약.

10) 위의 글, 10쪽.

11) 심광현, 노명우, 강정석, 『미래 교육의 열쇠, 창의적 문화교육』, 살림터, 2012, 157쪽.

12) 위의 책, 162쪽.

13) 위의 책, 201쪽 재인용.

14) 위의 책, 181쪽.

2) 거울뉴런이론

‘언어’의 존재는 인간(을 포함한 언어를 사용해 의사소통을 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의 생각과 욕구를 타인에게 표현하고, 타인의 생각과 욕구를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관점에서 보면 말이다. 인간이 자신 개인과 자신이 포함된 사회에 흔적을 남기려는 역사적 욕구를 반영하는 것 역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의식과 마찬가지로 언어는 다른 인간과 교류하고 싶다는 욕구에서, 그 절박한 필요성 때문에 비로소 발생한 것이다. 어떠한 관계가 존재할 때, 그것은 나에게 대해 존재한다. …… 의식이란 바로 그 첫 순간부터 하나의 사회적 산물이며, 무릇 인간이 존재하는 한 언제나 그러하다.¹⁵⁾

비고츠키에 의하면 어린 아이의 언어 습득은 사회적 말부터 시작한다. “아동은 사회적 말에서 자기중심적인 말, 내적인 말 순으로 습득하게 되는데 이는 한편으로 아동의 언어 발달이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⁶⁾ 심광현은 아동의 언어 습득이 사회적 언어에서 시작되는 과학적 근거를 <거울 뉴런>과 연결 지어 설명한다. 거울뉴런은 “자신이 행동할 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관찰을 통해 신경생물학적 공명현상을 나타낼 때 이를 활성화시키는 신경세포”¹⁷⁾이다.

거울뉴런은 타자에 대한 이해의 욕구, 즉 ‘나’ 아닌 것에 대해 알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내는 것이다. 왜 ‘나’는 ‘나’ 아닌 것에 대해 알고 공명하고자 하는 것일까? 이는 생존을 위한 전략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지인이 한 명도 없는 낯선 공간에 갔다고 해보자. 당장 행할 처세술은 ‘관찰’과 ‘따라하기’일 것이다. 그 집단의 공통적인 행동양식, 즉 그 집단의 문화를 최대한 빠르게 습득해 적응하고자 할 것이다. 거울뉴런은 인간이 ‘나’ 아닌 것에 대한 관찰을 통해 자신과의 동일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덧붙여, 관찰자가 자신의 거울뉴런을 통해 이해하는 것에는 “사람의 내적 관점도 포함”¹⁸⁾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내적 관점, 즉 타자의 외적 행동이나 반응뿐만 아니라 타자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도 거울 뉴런을 통해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아는 거울뉴런을 통해 타자와의 연결감을 키워나가고 이로써 감정이입 능력 및 사회적 지능을 성장시킬 수 있다.¹⁹⁾

한편, 감정뉴런은 언어 습득과도 관련성이 깊다. “거울 효과를 통해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듣는 사람에게 즉각 전달되는 행동이나 일련의 행동을 소리 내어 생각하는 것이 언어”²⁰⁾이기 때문이다. 언어는 홀로 발견하거나 발명하는 것이 아닌 공동의 발명품이자 약속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화자와 청자 간의 각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의 의미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공감대의 맥락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거울 뉴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사회적 관계망은 한 존재가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치가 된다. 이에 심광현은 요하임 바우어의 말을 빌려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험에 참여하는 것

15) 심광현, <문화연구와 협력교육: 레이먼드 윌리엄즈, 비고츠키, 인지과학의 만남>, 2013, 3쪽 재인용.

16) 심광현, <비고츠키와 공감의 생태학: 근접발달, 카오스 이론, 거울뉴런발달생태학>, 2013, 10~11쪽 요약.

17) 위의 글, 11쪽.

18) 위의 글, 12쪽.

19) 위의 글, 13~15쪽 요약.

20) 위의 글, 16쪽.

은 인간이 가진 철학적 권리일 뿐 아니라 신경생리학적 권리이기도 하다”²¹⁾는 점을 강조한다.

2. 사회문화적 접근 - ‘자연적 성장의 육성’으로서의 문화, 인간발달생태학

1) ‘자연적 성장의 육성’으로서의 문화

레이먼드 윌리엄즈는 문화를 “자연적 성장의 육성”²²⁾으로 정의했다. 즉, “‘개인의 자연적 발달에 따른 성장과 집단지성을 매개로 한 사회적 육성’이란 두 차원이 합성된 개념”²³⁾인 것이다. 심광현에 의하면 “문화 개념은 개개인의 지적·감성적·인성적·신체적 능력의 계발, 자연 및 타자에 대한 주체의 태도와 관계 맺기(수용과 표현), 능력의 계발이라는 점에 초점이 주어지는 형용사적(느끼기)임과 동시에 동사적(소통하고 수행하기) 개념의 성격이 강하다.”²⁴⁾ 이러한 문화는 “계발해야 할 인간 잠재력이란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특정한 역능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승과 학습을 통한 일정한 ‘계발 과정’을 통해 자연 상태를 넘어서 문명화의 경로를 밟아가야 하는 것”이고 “문화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맺기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 맺기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화는 문명과 자연의 ‘사이-공간’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²⁵⁾

레이먼드 윌리엄즈의 정의에 대한 심광현의 해석은 문화라는 것 역시 무작위와 조화의 변증법을 이룬다는 것과 동시에 교육적 함의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연적 성장의 육성’에서 자연적 성장은 일종의 무작위성을 내포하고 있다면, (사회적) 육성은 조화를 내포하고 있다. 문화 개념에서 ‘자연적 성장’만을 본다면 개인은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개인의 기질만을 발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는 에니어그램의 9가지 각 유형이 자신의 기질만을 발휘하며 전체와 어우러지지 못하는 상태와도 같다. 반면, ‘(사회적) 육성’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개인의 다양성은 사라질 것이다. 전체를 이루는 부분들의 색깔은 바래진 채 오직 전체의 지향점만을 추구하는 전체주의적 모습이 될 것이다. 따라서 레이먼드 윌리엄스와 심광현이 강조했듯, 문화는 자연과 문명의 ‘사이-공간’에서 자연적 성장과 (사회적) 육성의 결합을 통해 무작위와 조화가 서로 변증법적으로 상호 소통을 할 때 형성된다.

한편, 교육적 측면에서 문화에 대한 윌리엄즈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자. 심광현은 “문화를 잠재적 발달을 촉진하여 그 발달 수준을 현실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회적 육성이라고 정의한다면, 이는 사실상 <문화가 곧 사회적 교육이며, 교육은 곧 문화적 육성>이라고 정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²⁶⁾는 것을 주장한다. 나아가 “이런 정의는 곧바로 실제적 발달 수준(자연적 성장의 현실태)과 잠재적 발달 수준(자연적 성장의 잠재태)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근접발달(교사-학생의 협력을 통한 육성)에 교육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비고츠키의 교육관과 일치한다”²⁷⁾는 것을 강조한다.

2) 인간발달생태학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은 ‘운’이라는 요소가 크게 작동한다.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

21) 위의 글, 16쪽.

22) <문화연구와 협력교육: 레이먼드 윌리엄즈, 비고츠키, 인지과학의 만남>, 6쪽 재인용.

23) <미래 교육의 열쇠, 창의적 문화교육>, 212쪽.

24) <문화연구와 협력교육: 레이먼드 윌리엄즈, 비고츠키, 인지과학의 만남>, 6쪽.

25) 위의 글, 6쪽.

26) 위의 글, 7쪽.

27) 위의 글, 7쪽.

가오는 랜덤박스와의 같은 삶에서 ‘운’이라는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에 앞서,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를 구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심광현은 브론펜브레너의 『인간발달 생태학』 이론을 가지고 한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환경을 파악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⁸⁾

ㄱ. 미시체계 : 즉각적인 주변 환경, 즉 근접영역에서 주의를 끄는 영역(이 체계의 작동은 앞에서 말한 거울뉴런의 활발한 작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ㄴ. 중간체계 : 장면들 간의 연결고리. 환경과 환경과의 관계 (ex. 학교와 가정 사이의 유대감)

ㄷ. 외체계 :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어도 그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그 사람의 직접적인 환경에서 무엇인가 일어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

ㄹ. 거시체계 : 위 세 가지 모든 환경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거시적 수준. 겹구조로 된 상호 관련된 체계들의 복합체를 덮고 있는 문화나 하위문화에 공통되는 사회적 제도의 이념과 조직 위를 덮고 있는 일반화된 형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의 발달에 있어 영향을 주는 생태학적 환경은 복잡하고도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보이지 않는 환경 역시 개인의 삶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의 확률을 높이기 위한 환경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환경 체계의 촘촘한 구성을 먼저 파악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육자의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교육자 또한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미시체계부터 거시체계까지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 그리고 다시 학습자에게 또 다른 미시체계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동시에 학습자로부터 또 다른 영향을 받는다. 어떤 교육과정을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러한 다층적 생태학적 지도를 인지했을 때 현실적이고도 낭만적인 이상향에 가까운 실라버스를 구성해낼 수 있을 것이다.

3. 종합 및 정리

이상 무작위와 조화의 변증법에 대해 과학적,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해 고찰해보았다. 먼저, 과학적 접근에 있어 카오스 이론과 근접발달영역, 칸트의 ‘합목적성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았다. 카오스 이론에서는 생명 집단의 자기조직화 과정이 질서와 카오스의 최적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과정은 ‘근접발달영역’의 작용 기제, ‘합목적성의 원리’와도 상통한다. 즉, 인간 집단의 학습 과정 및 창조성 발현의 과정에 있어 무작위성과 조화의 변증법은 늘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거울 뉴런을 통해 인간이 타자와 공명하는 사회적 존재임을 밝혔다. 한편, 거울뉴런이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특수한 장치인지는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접근으로는 레이먼드 윌리엄즈의 문화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다. ‘자연적 성장의 육성’이라는 정의는 ‘자연적 성장’이라는 무작위성과 ‘(사회적)육성’이라는 조화의 결합을 통해 문화가 생성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발달생태학을 통해 인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체계의 복잡하고도 촘촘한 구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통찰들은 간객관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다. 심입섭은 ‘간객관성’이라는 개념을 학습과 연결 지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학습을 통해 주체도 변하고 객체로 변하며, 우주 전체가 변한다. 학습은 주체와 객체의

28) 심광현, <비고츠키와 공감의 생태학: 근접발달, 카오스 이론, 거울뉴런발달생태학>, 2013, 16~19쪽 요약.

관계가 아니라 객관과 객관의 관계이다. 그래서 간객관적이다^{interobjectivity}. 학습은 이제 삶이 된다. 학습은 단순히 학습자의 뇌나 신체에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되고 삶이 된다 (Learning is Doing is Being).²⁹⁾

간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교육 패러다임으로는 복잡계 교육과 생태주의 교육 패러다임이 있다. 복잡계 교육 관점은 “‘자유로운 질서’라는 생각, 즉 높은 수준의 통일된 질서는 자연스럽게 창발된다”³⁰⁾는 사고방식에서 비롯한다. 이에, “복잡성 과학에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집단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재즈 음악의 즉흥 연주^{improvisin}와 같은 종류로 볼 수 있다.”³¹⁾ 따라서 교사는 전달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한 명의 참여자로서 자신을 인식하며, 학습자의 자기조직화를 통한 지식 구조 창발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생태주의 교육관의 경우 “인간의 사고는 단순히 우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³²⁾라는 점에서 인간 사고의 간객관성을 강조함과 더불어, ‘윤리적 행위’에 대한 담론을 끌어낸다. 이는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생태계 일부로서, 인간의 생태계에 대한 책임감과 “마음을 다해(마음 충만하게-역자) 참여^{mindful participation}하는 태도”³³⁾를 강조한다.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적용되고 있을까? 한국 공교육의 오늘날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Ⅲ. 한국교육과정에 대한 성찰 - 혁신학교 교육과정 실태를 중심으로

본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개요를 구성할 때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실태와 혁신학교 교육과정의 실태를 모두 파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분석 결과 두 부분에서 중첩되는 내용이 많고, 혁신학교의 모습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바를 보다 적극적,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개정 시 강조되었던 중점 사항만을 짚어보고, 바로 혁신학교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교육과정 실태에 대해 성찰해보고자 한다.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점 사항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라 교과 교육과정은 핵심개념 중심의 학습량 적정화, 핵심역량 반영, 학생참여 중심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과정 중심 평가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개정되었다.”³⁴⁾ 여기서 키워드는 ‘학습량 적정화’, ‘핵심역량’, ‘학생참여형 수업’, ‘과정 중심 평가’로 뽑을 수 있다. ‘학습량 적정화’의 경우,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었던 부분이다. 2015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각 학

29) Brent Davis, 심임섭 역, 『구성주의를 넘어선 복잡계 교육과 생태주의 교육의 계보학』, 씨아이알, 2014, xiii쪽.

30) 위의 책, 189쪽

31) 위의 책, 205~206쪽.

32) 위의 책, 193쪽.

33) 위의 책, 213쪽.

34) 배주경 외 6인,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실행 모니터링 연구(Ⅱ): 초·중학교 모니터링 및 결과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9, 3쪽 재인용.

교급³⁵⁾별 및 학년별로 교수·학습함에 있어 난항을 겪었던 단원들이 상급학교 및 학년으로 올라가도록 하였다. ‘학생참여형 수업’은 “진도에 급급하지 않고 학생참여 중심 수업을 통한 학습 흥미도 제고를 개정 중점의 하나”³⁶⁾로 제시하였다.

‘학습량 적정화’와 ‘학생참여형 수업’은 교육과정이 개편될 때마다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개선 사항이라면, ‘핵심역량’과 ‘과정 중심 평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제시된 개념이다. ‘핵심역량’은 교과에 따른 단편적 지식 암기에서 넘어서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통합적 능력을 기를 필요성에서 제시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융합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총 6가지가 제시되었다. ‘과정 중심 평가’는 학습 과정과 평가 결과의 환류를 강조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즉,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³⁷⁾하는 도구이자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³⁸⁾하는 기제인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18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2019년 초등학교 전체, 중·고등학교 1~2학년에 적용되며 2020년 초·중·고 모든 학년에 적용”³⁹⁾되어 2020년인 올해 모든 학년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게 되었다.

2. 혁신학교 교육과정 실태 파악

1) 혁신학교 현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혁신학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혁신학교 지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9년 경기도교육청의 13개 학교를 시작으로 2019년 현재 전국적으로 1,689개의 혁신학교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 전체 학교의 14.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도와 서울의 혁신학교가 전체 혁신학교의 53.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초등학교가 전체 혁신학교의 60%, 중학교가 31%, 고등학교가 9%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이나 학교급별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⁴⁰⁾

혁신학교는 2009년 교사들의 학교개혁 운동으로부터 출발하여 실험적 학교 형태로 시작되었다. 혁신학교의 서사가 10년이 된 현재는 정부 주도의 혁신학교 정책이 나오면서 혁신학교의 일반화를 시도 중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혁신학교에 대한 접근은 ‘자발적인 교육문화 개선 운동(movement)’로서 혁신학교를 바라보는 접근과 ‘일반화를 위한 정책(policy)’으로서 혁신학교를 바라보는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⁴¹⁾ 전자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운동’의

35) ‘학교급’이란 ‘교육 내용, 교육 목적 따위에 따라 나는 학교의 등급(출처: 네이버 국어사전)’으로 여기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구분을 말한다.

36) 위의 책, 94쪽.

37) 위의 책, 104쪽 재인용.

38) 위의 책, 104쪽 재인용.

39) 위의 책, 3쪽.

40) 이주연 외 4인, 『혁신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9, v 쪽.

41) 위의 책, 4쪽.

형태인 아래로부터의 교육 혁명을 뜻한다면, 후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도하는 형태인 위로부터의 교육 개혁을 뜻한다.

“‘운동’으로서의 혁신학교가 전국 단위로 정책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았을 때에는 2009년 경기도교육청이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운영을 시작한 시기를 혁신학교의 태동기로, 2011에서 2014년 서울, 강원, 광주, 전남, 전북 지역 혁신학교 출발을 혁신학교 정책의 확대기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혁신학교가 17개 모든 시·도 교육청으로의 확대된 시기를 혁신학교 정책의 전국 확산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⁴²⁾ 현재 혁신학교는 ‘운동’적 성격에서 ‘정책’적 성격으로 넘어간 상황에 있다. 한편, 혁신학교가 정책화됨에 따른 새로운 국면들이 펼쳐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혁신학교의 의미와 학력관

이주연 외 4인은 해당 연구에서 “혁신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토대로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혁신을 이루어가는 학교’로 정의”⁴³⁾하였다. 여기서 키워드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자발성, 협력, 학교 교육과정의 혁신, 이루어가는 학교’이다. 이를 풀어서 이해해보자면, ‘민주적인 학교 문화’란 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에 있어서 학교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고루 들어갈 수 있는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문화를 의미한다. 또한, 혁신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의 운영에 있어 주체성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자발성’과 ‘협력’을 통해 민주성과 자발성, 협력의 성격을 담아낸 ‘학교 교육과정의 혁신’을 지향한다. 나아가 학교 교육과정의 혁신은 정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혁신학교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것 중 중요한 한 가지는 ‘학력’에 대한 관점이다. 이는 학력(學歷)과 학력(學力)으로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학력(學歷)은 “학교를 다닌 경력”이라면 학력(學力)은 “교육을 통해 얻은 능력”을 의미한다. 혁신학교는 “기존의 연구들은 우리 사회가 무의식적으로 학력(學歷)을 학력(學力)과 동일시하고, 학력(學歷)이나 학벌이 능력을 보증한다고 생각하는 기존의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비판하며, 단순한 교과 지식의 습득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사회의 변화와 흐름에 대한 통찰을 통해 진정으로 미래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학력을 강조하고 있다.”⁴⁴⁾

한편, 혁신학교의 학력관은 학업성취도와 관련한 혁신학교에 대한 비판 맥락과도 연결된다. 혁신학교와 관련하여 나오는 다수의 비판에는 ‘기초학력 저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기초’와 ‘학력’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나아가 “전통적 경쟁문화 속에서 강조되어 온 학력(學歷)의 개념을 새로운 학력(學力)의 개념으로 대체하기 위한 논의가 얼마나 진전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가가 혁신학교의 가치를 일반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이 될 것”⁴⁵⁾이라는 점에서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학력관에 대한 설득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3) 혁신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특징

(1) 혁신학교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특징

42) 위의 책, 32쪽 재인용.

43) 위의 책, 26쪽.

44) 위의 책, 29쪽.

45) 위의 책, 42쪽.

혁신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학교 대부분은 주제 중심의 교과 통합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혁신학교의 철학과 교육 비전, 학생의 특성,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 지역적 특성을 반영·통합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교과 내용의 순서 변경, 교과 내용 통합, 교과 내용의 선택이나 삭제 등을 통해 교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셋째, 교과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하는 모습도 보였다. 교과의 특성이나 학습 내용에 따라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학생의 기초학력 함양을 위한 것과 동시에 주제 통합 교육이나 모둠 활동에 필요한 선행 지식 생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⁴⁶⁾

혁신학교 수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중심 수업을 지향한다. 학생들이 수업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의·토론, 발표 수업 등을 통해 학생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수업을 의식적으로 만들고자 했다. 둘째, 협력 기반 수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모둠 활동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개별 학생의 의사표현과 활동을 촉진하고, 집단의사결정 과정을 통한 학습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한편, 모든 수업에서 모둠 활동만 고수하지는 않는다. 교과·학습내용·상황에 따라 수업 유형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삶과 연계된 수업을 시도한다. 삶과 연계된 주제에는 강제징용, 위안부 등의 사회적인 문제와 문화재 환수, 전통 시장 살리기 등의 지역적인 문제, 학교폭력과 같이 학생들이 직접 고민하는 문제 등이 포함되었다.⁴⁷⁾

혁신학교 평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술형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학생 중심 수업을 구현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평가 방식은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학생의 인성·정의적 측면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다. 둘째, 지필평가가 함께 시행되기도 하였다. 수학 교과와 같이 학습 내용의 위계성이 강하거나 ‘기초학력’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논의되는 교과의 경우, 문제풀이식 지필평가가 실시되고 있었다. 셋째, 평가 결과를 기록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특히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성장 평가를 중시하여 배움의 과정에서 개별 학생이 지닌 재능과 성장 모습을 발견하여 기록해 나가는 것을 평가의 요지로 강조하였다. 더불어 대부분의 학교에서 평가 결과를 교육과정 계획 및 수업 개선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⁸⁾

한편, 혁신학교가 지니고 있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특징에서 비롯한 고민과 갈등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주제 통합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교사의 역량 차이에서 오는 깊이와 범위의 차이로 인해 교육과정을 실제로 운영할 때의 편차가 벌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교육과정 재구성에 의한 학습 순서 변경 및 선택적·집중적 학습에 불안을 느끼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적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수업 측면에서도 교사 역량에 따른 편차 발생과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 대입 준비에 대한 불안 등을 고민하고 있었다. 한편,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학력이 전통적 학력과 다르다는 점과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학력은 현재 대입시험 점수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고민을 재고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되었다. 평가 측면에서는 잦은 수행평가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감, 평가 결과 기록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감, 지필평가에 비해 점수의 명확성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오는 보호자들의

46) 위의 책, 117~123쪽, 181~186쪽 참고 및 요약.

47) 위의 책, 123~127쪽, 186~191쪽 참고 및 요약.

48) 위의 책, 127~130쪽, 191~195쪽 참고 및 요약.

불안감 등이 제시되었다. 더불어 과정중심평가와 평가기록시스템인 나이스(NEIS)의 기록 방식 차이로 인해 평가 결과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는 경직된 시스템의 문제도 지적되었다.⁴⁹⁾

(2) 혁신학교 체제의 특징

혁신학교 체제의 두드러진 특징은 크게 의사결정 체제,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체제, 교육활동 중심의 업무체제, 지역사회와의 연결 체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의사결정 체제에 있어서 혁신학교는 민주적 의사 결정 문화 구축을 중시했다. 민주적 의사 결정 문화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과 역동성을 지속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먼저, 학교의 의사 결정 사항들을 학교 구성원들이 토론하며 결정해나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협의 문화가 강조되었다. 민주적 의사 결정 문화 형성에 있어 요구되는 교육과정 리더십의 경우, 학교장 리더십과 중간 리더 교사의 리더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학교장에게는 “아래로부터 올라온 의견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는 서번트 리더십 형태를 가짐과 동시에 혁신학교의 신념이나 의지가 약화되었을 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되었다. 중간 리더 교사의 리더십은 혁신학교 및 교육과정에 대한 경험이 많은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발휘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사와 학교장의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주요 의사 결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중간 리더 교사의 업무 과부하 및 해당 교사들의 전출입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의 지속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 등의 어려움도 함께 제기되었다.⁵⁰⁾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은 혁신학교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기제로 논의되었다. 교사학습공동체는 구성원(전체, 교과별, 학년별, 주제별 등), 주요 운영 내용(학교 전반 관련 논의, 주제 연수, 학교/학년/교과 교육과정 논의, 수업공개 및 비평, 학생생활지도 논의, 독서 토론 등), 참여 방식(의무적/자발적), 운영 기간(정기/비정기)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교사학습공동체는 혁신학교의 철학과 비전 공유, 학교 의제들을 합의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기회 제공, 교사 집단의 전문성 신장, 신입 및 전임교사들의 적응을 돕고 새로운 중간리더를 양성하는 역할, 교육과정·수업·생활지도의 변화로 이어지는 긍정적 환류 등의 순기능을 하였다. 한편,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에 있어 어려움도 함께 파악되었다. 시간 확보의 어려움과 과부하 문제, 전입 및 신규 교사의 유입 등과 같은 구성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기존 학습공동체 운영에 대한 부담, 교사 간 의견 및 생각 차이로 인해 종종 발생하는 갈등, 교사의 자발적 참여 유도 문제 등이 대표적이었다.⁵¹⁾

교육활동 중심 업무체제로의 개선은 학교 교육과정의 혁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시도들을 살펴보면 먼저, 업무전담팀을 형성하여 이 팀에서 학교 업무를 전담하고 담임교사들은 교육과정, 수업, 학생 지도에 전념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업무전담팀의 업무 과부하라는 문제가 있어 또 다른 고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학년 중심 체제로 조직 개편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각 학년 체제에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여 의사 결정 경로를 짧게 하고, 교육 활동 및 생활 지도에 대한 협의를 상시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업무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사 등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전시성 행사를 줄이고, 교무회의의 형식 간소화 및 개편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실무원 배정을

49) 위의 책, 195~202쪽 참고 및 요약.

50) 위의 책, 230~236쪽 참고 및 요약.

51) 위의 책, 236~252쪽 참고 및 요약.

통해 행정 업무를 지원받음으로써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육실무원 배치 시·도 교육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행정 지원 인력이 없는 학교가 많아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⁵²⁾

혁신학교는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혁신학교가 지역사회와 가장 많이 연계하는 방법은 지역사회의 인력이나 시설을 활용하거나 학교 교육과정 성과를 지역과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나아가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된 마을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사례들도 관찰되었다. 한편,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의 부족, 지역사회 자원을 알 수 있는 정보의 부족 등으로 지역 연계 교육과정 구성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⁵³⁾

4) 혁신학교 교육과정 10년의 성과와 과제

혁신학교의 성과를 요약하면, “혁신학교는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 자치공동체와 전문적 교사학습공동체를 구축하게 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 및 수업의 혁신을 이루어냈으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되었다.”⁵⁴⁾ 한편, “구성원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갈등이나 문제들이 존재하며, 혁신학교 학생들의 학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⁵⁵⁾이며, 혁신학교가 정책화됨에 따라 “혁신학교를 양적으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학교 운영 및 수업이 기존의 학교들과 다르지 않은 ‘무늬만 혁신학교’를 양산할 가능성, 기존의 교육혁신 운동과 달리 관료적이고 하향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혁신학교의 성과에 대해 조급증을 가지게 될 가능성” 등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다.⁵⁶⁾ 이를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혁신학교 교육과정의 성과

혁신학교가 이룬 성과를 학생과 보호자, 교사, 학교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과 보호자 차원에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학생들은 모둠활동과 협력 학습을 통해 사회성이나 교우관계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리더십과 자발성 등이 향상되었다. 보호자 역시 학교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가 커지면서 학교 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이 늘어나게 되었다.⁵⁷⁾

다음으로, 교사 차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함께 편성·운영하는 과정을 통해 함께 성장하였다. 수업 공개 및 나눔 등을 통해 동료 교사와 상호 협력적 태도를 갖출 수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수업 성찰을 통해 수업에 대한 이해력과 자신감, 주체성이 향상됨으로써 교사들의 전반적인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⁵⁸⁾

마지막으로, 학교 차원에서는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경험과 사례들이 누적되면서 혁신학교 운영에 있어 안정화 및 심화된 변화가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협력적·민주적·공동체 학교 문화가 구축되었다는 점,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체제가 구축되었다는 점, 학교 철학과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를 이루었다는 점 등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⁵⁹⁾ 이러한 인식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 전

52) 위의 책, 253~255쪽 참고 및 요약.

53) 위의 책, 255~257쪽 참고 및 요약.

54) 위의 책, 5쪽 재인용.

55) 위의 책, 5쪽 재인용.

56) 위의 책, 5쪽 요약.

57) 위의 책, 258쪽, 260쪽 참고.

58) 위의 책, 150쪽, 259쪽 참고 및 요약.

59) 위의 책, 149~150쪽, 260쪽 참고 및 요약.

교사의 참여를 도모하는 문화적 기반. 교사학습공동체의 활성화 등이 주요 영향 변인으로 작용했다.

(2) 혁신학교 교육과정의 과제 - 지원 요구 사항

혁신학교가 ‘운동’ 차원에서 ‘정책’ 차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와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혁신학교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원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과 시·도 교육청 차원에 요구되는 지원 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혁신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 수준의 요구 사항을 살펴보겠다. 첫째, 혁신학교 교육과정의 실제적인 자율성 확대였다. 여기에는 교사의 담당 수업 시수 감축, 교과 내용의 학습량 및 수준 적정화를 비롯해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교육과정의 자율성에 대한 재고가 포함되었다. 둘째, 혁신학교 정책을 지속하거나 확산하기 위해서는 상급학교의 혁신교육과 연계하거나 대입 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는 새로운 학력관과 혁신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과 더불어 경쟁 중심의 입시제도 개혁 등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혁신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여 일반화하려는 성급함에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혁신학교 철학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민주적 문화나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급하게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을 추진할 때 교사들의 반발과 다양한 부작용이 돌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혁신학교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혁신학교가 ‘진보’적 정치 프레임으로 이해되는 것에 대한 경계가 요구되었다.⁶⁰⁾

다음으로, 시·도 교육청 수준의 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혁신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제시되었다. 이는 특히 지역별 혁신학교 정책 도입 시기 및 단위학교별 혁신학교 운영 맥락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각 맥락을 고려한 시·도 교육청 차원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시 되었다. 둘째, 혁신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보 및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시·도 교육청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혁신학교 업무 담당 부서와 더불어 초등교육과 및 중등교육과 등 교육청 내 부서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업무들을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 셋째,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 지원이 요구되었다. 여기에는 학교 안팎의 교사학습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및 내부형 공모 교장 증가 등이 포함되었다. 넷째, 해당 지역의 혁신학교 모델 구축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기존의 다른 시·도의 혁신학교 정책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것을 넘어서 각 지역의 고유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혁신학교 정책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⁶¹⁾

3. 한국교육과정에 대한 자기연관성 고찰

이상 살펴본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혁신학교 10년의 모습은 기존 공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던 필자의 좁은 식견을 넓히고 편견적 시선에 객관성을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동시에, 두 연구에서 제시한 오늘날 한국 공교육의 거시적 흐름은 필자가 직접 마주하는 미시적인 교육 상황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게 하였다. 거시적으로 볼 때, 교육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음 또는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이전에 비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수긍이 갔다. 하지만, 실제 마주하는 학교 현장에서는 변화의 생동보

60) 위의 책, 152~153쪽, 261~263쪽 참고 및 요약.

61) 위의 책, 153쪽, 263~265쪽 참고 및 요약.

다는 변화에 대한 피로와 변하지 않음에 대한 매너리즘이 공존하고 있어 앞서 살펴본 거시적 흐름과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였다.

필자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학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과도기적 시기에 임용교사를 치렀고, 현재 ‘정책’적 성격으로서의 혁신학교에서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로 3년째 재직 중이다. 실제 학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간제 근무자부터 발령받은 근무자까지 3년 간 마주했던 교사 다수는 잦은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피로감을 느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점 사항이 무색하게 교과 내용 전달에 치중한 강의식 수업, 지식 중심의 지필평가 시행 등 기존에 비판받았던 교육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필자가 노동하는 학교가 ‘혁신학교’임에도 전반적인 교육방식이 변화하지 않은 채 운영되는 지점이 많은데, 이는 필자의 학교가 앞서 살펴본 혁신학교의 ‘전형’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으로 지정된 혁신학교에서 나타나는 혁신에 대한 동력 부족이기도 하겠다. 혁신학교 철학이 머리로만 이해되고 있고, 혁신학교에서 강조하는 학력(學力)관도 체화되지 않았다. 이는 혁신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반이 되는 학교 문화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우선 의사소통 체제에 있어서 부장교사 중심으로 돌아가며, 하향식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교원학습공동체는 교사들에게 또 다른 업무 과중으로 느껴지거나,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상 실효성을 크게 이루고 있지 않다. 학교 문화가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바와 달리, 기존의 모습을 고수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각자만의 학습운영과 수업을 하며 각자도생하고 있다.

더불어, 두 연구 문헌을 읽으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거리감이 어디서 비롯한 것인지 거시적 시점으로도 다시 생각해보았다. 평가원에서 분석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혁신학교 10년의 모습은 성과와 한계를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었다. 한편, 이를 읽으면서 눈이 가는 부분은 한계 또는 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훨씬 많았고, 더 큰 맥락에서의 해석과 대안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아쉬움을 느꼈다. 근본적인 문제인 대학입시제도, 학벌주의,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에 대한 맥을 짚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경쟁적 대학입시 문화와 학벌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그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아래로부터 시작되었던 혁신학교 운동이 정책 차원으로 넘어가면서 생겨나고 있는 매너리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교육 혁신의 일반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모두가 알고 있지만 회피하고 있는 낙오자 양성 시스템인-대학입시‘제도’부터 손봐야 할 것이다.

IV. 방향 모색

비고츠키에 의하면 교육은 “일종의 대화 과정”⁶²⁾이고, 라캉에 의하면 “자연적·사회적 삶의 과정(The Real, 실재계)으로부터 발생한 다양한 문화적 체계/코드(The Symbolic, 상징계)를 습득하게 함과 아울러 이를 각자의 잠재력에 맞게 개성 있게 변용하는(The Imaginary, 상상계) ‘주체화 과정’”⁶³⁾이기도 하다. 이는 주체화 과정이 ‘본디 그러한 자연’과 ‘본디 그러하지 않았던 것을 그러하게 만드는 인공’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레이몬드 윌리엄스의 ‘자연적 성장의 육성’이라고 하는 ‘문화’ 개념과도 다분히 연결된다. 따라서 자유로운 개인들이 연합하는

62) 위의 책, 90쪽 재인용.

63) 위의 책, 22쪽.

문화를 위한 교육적 실천은 자연적 본성과 사회적 맥락, 개인의 다양성 등 여러 맥락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브론펜브렌너의 다수준적 생태학적 체계 틀을 빌려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필자가 주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미시체계에서의 설계를 상세하게 해보고자 한다.

1. 미시체계 - 통합교과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하루는 이묘우 교수님께 교육노동자로서 느끼는 학교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했다, 그러자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떤 변곡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전달자이자 안내자의 위치에서 단어 하나에서 행동 하나까지 최대의 고민해서 내보내는 것부터가 변곡의 시작이라는 것. 작은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서 혁명은 시작하는 것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날갯짓이 불러일으킬 변화의 바람을 떠올리며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다. 이에 필자가 마주할 교실에서 어떤 비행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로 교육과정 재구성부터 해보고자 했다. 논문을 준비하면서 접한 프레네 교육, 브루너의 나선형 교육과정, 심광현의 창의적 문화교육 개념들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새롭게 구성한 2020년 6학년 1학기 교육과정 열개는 아래와 같다.

월	주차	수학	주제 통합	사회	도덕	국어	실과	미술	
4	1	진단평가	평화로운 교실 만들기 프로젝트 (학년 세우기)	1-2.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1.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7. 우리말을 가꾸요	진단평가	-	5. 짝어 표현한 그림
	2	2. 각기동과 각별							
	3								
	4	예민하게 미디어 읽기 (미디어 비평)	-	3. 나를 돌아보는 생활	3. 내용을 추론해요 7. 우리말을 가자신해요	1. 나와 가족			
5	5	4. 비와 비둘	민주화 과정과 민주공화국 활동 (민주주의)	1-1.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	3. 짜임새 있게 구성해요	<운작품 읽기> 0. 독서 단원 2. 이야기들 간추려요 3. 내용을 추론해요 8. 인물의 삶을 찾아서	-	2. 생활 속에서 만나는 색
	6								
	7	5. 여러 가지 그래프		1-3. 민주 정치의 원리와 국가 기관의 역할		4. 주장과 근거를 판단해요			
6	9	6. 직육면체의 부피와 겉넓이	송정 연극단 (연극)	-	-	0. 연극 단원 1. 비유하는 표현	<글쓰기> 4. 주장과 근거를 판단해요 5. 속담을 활용해요 9.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요	-	6. 미술 작품 속 숨은 이야기
	10								
	11	3. 소수의 나눗셈	3-1.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	2. 작은 손길이 모여 따뜻해지는 세상	3. 속담을 활용해요	3. 소프트웨어와 생활			
7	14	1. 분수의 나눗셈	경제 박사님 되어보자 (경제)	3-3.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	-	-	-	-	3. 편안하고 아름다운 생활용품
	15			3-2.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16								
17									
18	학기 마무리 및 방학식								

[색 구분] 파랑: 독립적으로 나가는 단원 / 주황: 주제 중심 통합 단원 / 빨강: 매우 일정하게 진행 예정 단원

<그림 2> 2020학년도 6학년 1학기 교육과정 재구성

먼저, 6학년 1학기에 제시된 교과별 단원과 각 단원에서 도달해야 하는 핵심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주제 중심 통합이 가능한 과목들을 엮어보았다(주황). 수학과 다른 과목들 중 몇 단원은 특성상 독립적으로 나갈 예정(파랑)이다. 통합 수업은 사회, 도덕, 국어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독서와 글쓰기의 경우 독립적으로 나가되 상황에 맞게 주제 중심 수업과 연결 지을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별도로 표시했다(빨강). 이 글에서는 프레네가 제시한 구체적인 학습 원리 및 학교 운영 방법인 “실험적 모색, 자유표현, 협력 교육”⁶⁴⁾이라는 요목에 따라 필자가

64) 위의 책, 106쪽

구성한 6학년 1학기 교육과정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1) 실험적 모색 - 주제 중심 프로젝트 수업

프레네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리저리 시도해보는 여러 행위 중 하나가 성공으로 사람을 이끌 수 있다”⁶⁵⁾는 점에서 실험적 모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프레네가 제시한 실험적 모색의 학습 원리는 “아동이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 실험하는 것을 통해, 조사하는 것을 통해, 읽는 것을 통해, 참고자료를 선택하고 분류하는 것을 통해 학습 활동을 조직하도록 하는 것”⁶⁶⁾으로서 프로젝트 학습과 맥락을 함께 한다.

6학년 1학기에서 다룰 주제는 크게 네 가지로 ‘학급 문화 세우기’, ‘미디어 비평’, ‘민주주의’, ‘경제’이다. 주제별 프로젝트를 구성해 학생들이 ‘주제 설정, 계획, 실행, 피드백’의 절차를 걸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전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브루너가 강조한 ‘나선형 교육과정’을 염두에 두어 “일련의 주제를 풍부한 사례와 다각적 접근법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해하는 과정과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발견하고 다양한 분석 방법을 실험해보도록” 하고자 한다. 1학기 수업 중 가장 먼저 진행할 ‘평화로운 교실 만들기 프로젝트’에 관한 교육과정 전개 계획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목표	1. 환대를 통한 학급의 소속감 높이기 2. 평화로운 교실 : 평화 4대 규칙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하기, 동의와 가이드라인 만들기 3. 성평등한 공동체 : 축적되어 온 성편견을 돌아보고, 성평등한 학급을 위한 실천 다짐하기 4. 즐거운 학급 : 다양한 교실놀이와 활동을 통해 즐거운 교실 공동체 만들기 5. 성취감 있는 교실 : '학습'의 의미와 방법을 익히고, 학교 생활에서 실천하기	
차시	주 제	활동 내용
1~2	[환대] 환영하기	<input type="checkbox"/> 교사 : 자기소개 및 지향 가치 제시 <input type="checkbox"/> 학생 : 만다라트 자기소개서 작성, 학생들의 지향 가치 떠올리기 과제 제시 <input type="checkbox"/> '틀러도 괜찮아' 읽고 우리가 원하는 교실 써 붙이기 <input type="checkbox"/> 1년 뒤 나에게 편지 쓰기 <input type="checkbox"/> 기념사진 촬영, 키재기
3	[즐거움] 친해지기	<input type="checkbox"/> '만다라트' 바탕으로 자기소개 <input type="checkbox"/> 놀이의 수준 6단계와 교실 운동장 대형 연습 <input type="checkbox"/> 교실 놀이 - 이름 빙고, 줄서기 게임, 얼굴에 점이 생겼어요
4~5	[평화, 성평등] 학급 가이드라인	<input type="checkbox"/> 한 학기 동안 비우고 싶은 것과 채우고 싶은 것 나누기 <input type="checkbox"/> 우리가 바라는 우리 반의 모습 떠올리기 <input type="checkbox"/> 학급 가이드라인 만들기
6	[즐거움] 협동 율동	<input type="checkbox"/>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율동 맞추기
7~8	[즐거움] 협동화 그리기	<input type="checkbox"/> 손바닥 협동화 그리기
9~10	[성취감, 성평등] 사전 진단 활동	<input type="checkbox"/> 다중지능 검사 <input type="checkbox"/> 성평등 인식 조사 활동
11	[성취감] 생활절차 점검	<input type="checkbox"/> 학교 일과와 필요한 생활 절차 점검하기 - 등교 아침인사, 쉬는 시간, 교과 이동 준비, 줄 서기 등
12	[성취감, 즐거움] 모둠별 팀빌딩	<input type="checkbox"/> 모둠의 기능과 모듬원의 역할 나누기 <input type="checkbox"/> 모듬별 협력 중선 띄우기
13~14	[성취감] 의미있는 역할	<input type="checkbox"/> 학급에서 필요한 역할 브레인스토밍 <input type="checkbox"/> 역할 별 이름 정하기 <input type="checkbox"/> 역할 지원 및 선정
15~16	[평화] 의사소통의 기초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의 개념 : 가라사대 놀이, 고양이와 개 머라이어언의 법칙 <input type="checkbox"/> 듣기 : 바라보며 듣기, 반응하며 듣기, 공감하며 듣기 <input type="checkbox"/> 말하기 : '곰씨의 의자' 읽고 자신의 언어 돌아보기, 나 전달법
17	[성취감] 학습법	<input type="checkbox"/> 학습 What, Why, How? <input type="checkbox"/> 노트정리법과 마인드맵 정리법
18	[평화] 평화학급회의	<input type="checkbox"/> 감사 나누기 <input type="checkbox"/> 평화로운 교실 만들기 프로젝트 소감 나누기
19	[즐거움] 공동체놀이	<input type="checkbox"/>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손님 모셔오기

<그림 3> ‘평화로운 교실 만들기 프로젝트’ 교육과정 전개 계획

2) 자유 표현 - 글쓰기와 미적 경험

자유 표현에는 말하기(입), 글쓰기(문자), 미술(이미지), 음악(소리), 체육, 연극(몸동작)이 포

65) 위의 책, 107쪽.

66) 위의 책, 107쪽.

함된다. 자유 표현은 “학생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교육법”⁶⁷⁾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교사는 학생들의 자유 표현을 점검함으로써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과정에 대한 파악과 환류의 과정, 즉 실질적인 과정 중심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한 학기 동안 꾸준한 글쓰기 수업과 미적 경험 활동을 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글쓰기 수업, 연극 창작, 미술 활동 등이 포함된다. 글쓰기 수업은 인현진 선생님께 배운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를 초등학생 수준에 맞춰 변형·재구성해보고자 한다. 연극을 비롯한 예술 활동은 심광현 외 2인이 제시한 ‘창의적 문화교육’에서 강조하는 예술 교육과 맥을 함께 한다. 특히 예술 교육을 광의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마음의 전체 능력들 간의 자유로운 유희”⁶⁸⁾에서 비롯한 지성, 감성, 인성의 통섭을 촉진할 수 있는 미적 경험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창의적 문화교육’에서 제시한 “개별 통합교과 프로세스”⁶⁹⁾를 참고해 ‘연극’ 프로젝트를 가지고 대략적인 수업 개요를 구성해보았다.

연극 수업	주제 선정 및 내용 구성		형식 구성	결과물 산출
내용면 (교과 내용)	① 시놉시스		② 트리트먼트	③ 대본
	교사 (예시)	주제 선정 후 줄거리/개요 작성 예시	플롯 재구성 예시	대본 완성 예시
	학생 (활동)	교사의 예시 참고, 학생 개별적 줄거리/개요 작성	토론을 통해 모둠별 시놉시스 선정 후 플롯 재구성	모둠별 대본 완성
표현면 (예술)	④ 제작 기획		⑤ 제작	⑥ 공연
	모둠별 제작계획서 선정, 역할 분담		모둠별 공연 연습, 소품 제작	최종 공연, 모둠별 평가

<표 3> 개별 통합교과 프로세스를 적용한 연극 수업 개요

3) 협력 교육 - 학급자치와 협력학습

프레네는 학교를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바라보았다. “협동조합으로서의 학교란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행위자들이 학교의 삶과 운영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⁷⁰⁾ 이에 대해서는 프랑스 프레네 학교 교사인 디틀린데 바이에가 소개한 ‘프레네 학교’의 수업 장면에서 구체적인 협력 교육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수업시간에 할 작업들의 조직 및 전개는 교사들만이 아니라 학생 전원이 참여한다. 하지만 타율에 익숙한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자율적 구조로의 변화에 당혹해하며, 심지어 공격적 반응까지 보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사가 우선적으로 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틀을 조속히 학급회의에 넘겨야 한다. 또한, 정해진 한 시간 단위의 수업 구조를 없앤 뒤, 학생들에게 자율적 시간을 제공하여 ‘자유학습시간’을 마련하며, 학급위원회 시간을 확보하여 가급적 주의 마지막 시간으로 잡아 고정시킨다. 이 학급위원회를 통해 수업과정의 설계, 자유학습시간의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즉 프레네 교

67) 위의 책, 108쪽.

68) 위의 책, 165쪽.

69) 위의 책, 274쪽, 275쪽 참고.

70) 위의 책, 109쪽.

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학급의 협동적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 각자가 교실 꾸미기, 주간계획, 수업 구성, 이 모든 것을 직접 수행하며, 이는 학급 공동 과제가 된다. 학생들은 스스로 기획, 결정, 책임, 교류와 결정된 것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⁷¹⁾

모두의 참여를 도모하는 것은 교사가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틀을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틀을 마련할 때 어디까지 교사가 설정하고, 어디부터 학생들의 자율에 맡길 것인가는 지속적인 학급회의를 통해 조율할 수 있다. 학급회의의 활성화와 자유학습시간의 설정은 학생들의 자율성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장치로서 중요하다. 이에 매주 학급회의와 자유학습시간을 학급자치 시간(창체 활용)을 설정하여 학생-학생 간의 민주적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를 종합한 기초 시간표는 아래와 같다.

	월	화	수	목	금
1교시	국어(읽기)	국어(읽기)	과학	수학	음악
2교시	체육	수학	수학	과학	음악
3교시	수학	사회	영어	다문화	수학
4교시	과학	사회	국어	체육	국어
5교시	영어	미술	학급회의	영어	실과/도덕
6교시	사회	미술		국어(쓰기)	자유학습시간

([색구분 추가] 회색: 전담시간, 보라: 학급자치시간)

<표 4> 교육과정 재구성에 기반으로 설정한 6학년 1학기 기초 시간표

2. 중간체계 : 교사-교사, 학생-보호자-교사-지역사회의 연결

중간체계에서 교육적 실천은 교실 장면과 관련된 다른 미시체계에서의 장면들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교실 속에서 나타나는 교사-학생, 학생-학생 관계에서 벗어나 교실 밖의 교사-교사, 교사-보호자, 학교 밖에서 맺는 학생-학생, 학생-보호자의 관계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교사로서의 자기 연관성을 담고자, ‘교사’로서 마주하는 미시체계 간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중간체계에 초점을 맞춰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겠다.

1) 교사양성과정과 교사학습공동체 개선

교사는 매년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년 60시간 이상 의무 연수를 들어야 한다. 교사 대상 연수는 크게 직무연수와 자율연수로 나눌 수 있다. 직무연수의 경우 의무 연수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시도교육청연수원, EBS, 아이스크림, 에듀니티 등)에서 개설된다. 자율연수는 말 그대로 교사가 자기 연찬을 위해 자율적으로 듣는 연수로서 필수 이수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중에서 60시간 이상 의무 이수의 내실화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연수에 대해 선생님들의 참여율 및 흥미도가 떨어지는 점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교사양성과정에서부터 돌아보고 개선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재 자발적 의지를 도모하는 차원의 교사학습공동체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개선책 또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초등교사양성과정인 교육대학교의 커리큘럼을 살펴보겠다. 커리큘럼은 크게 ‘교양’,

71) 위의 책, 264쪽.

‘교직’ 과목으로, ‘교직’ 과목은 다시 ‘교육학’과 ‘교과교육’, ‘실습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학’은 교육에 관한 철학, 사회학, 심리 등과 같은 교육에 대한 기반 학문이라고 한다면, ‘교과교육’은 국어, 수학, 미술, 체육 등 각 교과목의 내용과 교수 방법을 다루는 응용학문이라 할 수 있다. ‘실습 과정’은 실제 학교 현장 실습과 교육 봉사를 포함한다. 문제는 교대의 교육과정에서 지나치게 교과 교육 중심이라는 것이다. 초등 임용고시 1차 필기시험 문항 역시 교과목 중심으로 되어 있어, 파편적인 지식들을 단순 암기해야만 통과할 수 있다. 이러한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실질적인 학생 이해 및 상담, 현실 대처가 시급한 실제 교육현장과 거리가 멀다. 그렇기에 임용고시 과정을 험난하게 뚫고 학교를 들어온 초년생 교사는 무력감과 박탈감,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 차원의 교사 연수 과정은 대학 때 들었던 ‘의미 없는’ 교사양성과정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교사들의 기대치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제적인 교사양성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과정부터 실효성 있는 교사양성 커리큘럼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즉, 교과교육 중심의 커리큘럼에서 교육학과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학을 통해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과 지혜를 얻고, 실습 기간을 확장하여 실제적인 교사 전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혁신학교 운동에서 주된 동력으로 작용한 민주적 연대 구성체였던 교사학습공동체는 혁신학교가 운동 차원에서 정책 차원으로 넘어가면서 교육청 정책의 하나가 되었다. 이로써 경제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원학습공동체 활동시간을 앞서 언급한 60시간 의무 연수 시간에 포함되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되는 등 교사들 간의 협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편, 이러한 기반에도 불구하고 교사학습공동체가 일부 학교에서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사학습공동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를 포함한 다수의 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혁신학교 교사들은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문제와 모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⁷²⁾를 언급했다. 교사들의 행정 업무 과중은 교사의 수업 역량을 강화 및 협력적 학교 문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따라서 교사업무의 정상화를 통해 교사가 자신의 실질적인 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교사 간 협력적 집단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2) 학생-보호자-교사-지역사회의 연결

중간체계 중에서도 보호자, 지역사회와의 연결 부분이 생각을 정리하고 글로 풀어내는 데 가장 오래 걸렸다. 중간체계가 미시체계 간의 고리인 만큼, 실천 주체로서 그 고리를 넓혀나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실천의 고리를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얼마만큼 확장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공존했다. 더불어, 보호자 및 지역사회와의 연결이라는 과제는 가장 의식화가 덜 된 부분이어서 글로 풀어낸 것을 실생활에서 얼마만큼 실천할 것인가와 관련해 필자 스스로에 대한 자기 검열 역시 강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여기에 제시하는 실천 방향 중 몇 개라도 행동으로 옮겨보자는 다짐을 하며 지면을 채워보고자 한다.

보호자는 교사·학생과 더불어 교육의 3주체 중 하나로서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학생이 교실에서 주체적이고 민주적인 문화를 접하더라도 가정에서 타자화되고 비민주적인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교육의 동력은 쉽게 낮아지게 된다. 이에 사례⁷³⁾를 통해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살펴보겠다. 첫째, 보호자-교사-학생 다모임이다. 고양시 덕양중학교에서는 보호자-교사-전교생이 매

72) 이주연 외 4인, 『혁신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9, 268쪽.

73) 김훈석, <무엇이 학교를 바꾸는가 1부 학교 변화의 열쇠>, 다크프라임, EBS, 2020 참고

년 한자리에 모여 생활협약규정을 나누는 대토론회를 실시한다. 각 주체의 대표는 각각의 입장을 수렴하고, 대토론회 당일에는 3주체의 대표와 학생 전원이 참석해 기존 생활 규약을 돌아보고, 토론을 통해 규약을 변경하거나 유지한다. 이는 학교의 모든 교육 주체가 학교 운영에 있어 적극적이고 민주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라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보호자 모임 활성화이다. 덕양중학교의 경우, 매주 목요일 7시에 이준원 교장은 ‘이슬비 교육’이라는 보호자 모임을 진행한다. 총 12회라고 하는데, 이 모임은 보호자 개인의 이야기를 나누는 집단상담과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회기별 주제는 ‘보호자 내면 다루기,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식, 분노 클리닉, 공감과 격려’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기적 보호자 모임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 이준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프지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역기능 가정에서의 어려움도 있지만, 대한민국 부모는 다 아픕니다. 불안감이 극도로 높고, 어떤 큰 질병이 있냐면 ‘우리 아이만 잘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가장 큰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철학을 바꿔놓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와야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건 몇 명만이라도 와서 바뀌면 그분들에 의해서 오지 못한 분들도 이런 모임, 저런 모임 이렇게 연결돼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⁷⁴⁾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위한 실천 방향으로는 첫째, 지역 연계 수업 기획이다. 배움이 삶과 연결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의 터전 속에 배움을 녹여내는 것이겠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탐색하는 수업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어본다면 어떨까. 이를 위한 상상력은 아직 발휘하지 못해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지 못해 아쉽다. 둘째, 지역 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교육청 차원의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문화예술, 과학탐구 등의 전문적 경험을 위해서는 학교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공간 속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기관이나 프로그램들을 교사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의 인프라 조사 및 자료 제공 또한 이루어지면 좋겠다.

3. 외체계와 거시체계 : 대학입시제도 개편, 기본소득운동

이라영 선생님이 <젠더와 섹슈얼리티>에서 언급하셨던 ‘부른 배 태제(full belly thesis)’가 떠오른다. 이는 레오폴 상고르가 “인권은 아침 식사에서 시작된다”고 하면서 식량권 해결 후에 참정권,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도 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말한다. 하지만 이라영 선생님의 말씀대로 인권은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종류의 권리는 함께 넓힐 수 있으며 그렇게 동시에 다양한 층위의 인권 확장이 이루어질 때 모든 인권 분야를 함께 강화할 수 있다. ‘부른 배 태제’는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나중에’의 향연을 불러올 뿐이다. 이는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운동은 문화운동, 사회운동과 함께 가야 한다. 전체의 유기성을 의식하고 각 분야의 추동력을 자극해나가는 운동이 필요하다. 이에 외체계와 거시체계에 있어 대학입시제도, 기본소득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보겠다.

1) 대학입시제도 폐지와 새로운 평가 시스템 구축

74) 위의 다큐, 36'38"~37'12"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과정중심평가’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제도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혁신을 이루는 데 있어 심광현 외 2인이 언급하였듯 “가장 중요한 장애물의 하나는 ‘서열화된 대학제도와 대학입시수학능력시험’이며 다른 하나는 ‘학력 중심 사회’이기 때문이다.”⁷⁵⁾ 교육과정·수업·평가로 나누어지는 교육 시스템의 유기적 관계 측면에서, 교육과정·수업이 “아무리 다양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서열화된 대학입시를 위한 상대평가 방식일 경우 전자는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⁷⁶⁾는 것 또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창의융합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평가 목표, 평가 내용·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우선 평가 목표에 있어, ‘선발’이 아닌 ‘환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서열 매기기 식의 대학입시제도가 사라지지 이유는 경쟁은 불가피하다는 상상력의 한계에서 온다. 우리는 이미 ‘대학입시제도’와 ‘학벌사회’가 낙오에 대한 불안과 상호 간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심광현 외 2인은 “대입자격고사로 전환하여 초중등 교육을 사교육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공교육을 정상화”⁷⁷⁾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즉, 대학 입학 자격 요건이 갖춰지면 모두가 대학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두의 교육적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공교육의 정상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대학 평준화라는 과제 또한 함께 안고 가야 할 부분이다.

다음으로, 평가 내용·방식에 있어 다중지능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새로운 평가 내용과 평가 방법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내는 문제 유형은 언어 지능, 논리 수학 지능과 같은 협의의 지성(오성)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이러한 평가 문항 구성으로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회적으로 ‘지식’과 ‘학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각 개인이 지닌 개별적 특성이 빛을 발하기도 하고 퇴색하기도 한다.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자유로운 연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드너가 주장했듯 “개인과 문화적 요인을 기반으로 하여 지능 개념을 확장해야”⁷⁸⁾한다. 이로써 MI(다중지능) 기반의 평가 항목으로 평가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다. 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수능이라는 지필 평가 방식이 각 개인의 능력을 얼마나 다각적·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학생부종합전형의 근본 취지(개인 능력의 다층적 평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 또한 함께 고민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2) 기본소득운동

토플러는 “지식·정보재가 ‘부 창출 시스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기존의 화폐 경제 시스템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부 생산의 동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주장”⁷⁹⁾했다. 지식·정보재의 특성은 물성이 없는, 즉 형태가 없는 무형 자산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특성은 “지식재인 ‘무형 자산’의 증식에 한계가 없다는 점만으로도 자본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⁸⁰⁾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자본주의 바깥을 상상할 수 있게 하며, 필자의 상상력은 기본소득운동과 마주했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⁸¹⁾이

75) 심광현·노명우·강정석, 『미래교육의 열쇠, 창의적 문화교육』, 살림터, 2012, 304쪽.

76) 위의 책, 143쪽.

77) 위의 책, 327쪽.

78) 위의 책, 192쪽 재인용.

79) 위의 책, 37쪽 재인용.

80) 위의 책, 38쪽 재인용.

다. 기본소득운동의 근거는 ‘공유부에 대한 권리’이다. “공유부(公有富, Wealth of Commons)란,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따질 수 없고, 어떤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⁸²⁾이다. 이는 “땅, 공기, 천연자원 등의 ‘자연적 공유자산’으로부터 형성된 ‘자연적 공유부’와 지식, 기술, 데이터 등의 ‘인공적 공유자산’으로부터 형성된 ‘인공적 공유부’”⁸³⁾로 나뉘는데, 둘 다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될 수 없기에 공유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운동은 핀란드에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요인과의 연결된다.

핀란드에서는 교육제도가 전체 복지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유된 전제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성공적인 안착이 가능했었다. 따라서 이 모델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려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높고, 타인의 처지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웃과 동료에 대한 대우가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사상운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 이런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조건으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높고, 의사소통의 민주화 정도가 높으며 모든 시민이 예외 없이 포함된 보편적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사회운동이 동시에 발전해야 한다.⁸⁴⁾

기본소득이 보장될 경우, 사회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자유로운 개성과 다중지능을 발휘시킬 가능성이 커진다.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고,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 정기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각 개인이 안정적으로 각자의 삶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각 개인은 자본주의적 강박에서 벗어나 생존이 아닌 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영위할지에 대한 사유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V. 결론

이 글을 적으면서 그간 쌓아왔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풀어냄에 있어 큰 성과를 이룬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무작위와 조화의 변증법에 관한 교육적 성찰을 통해 교육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사회적 어울림과 각 주체 안에서의 어울림이라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한국교육과정의 실태를 검토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점 사항을 살펴보고 혁신학교 10년의 서사를 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다수준적 생태학 체계를 빌려 앞으로의 교육적 실천 방향을 모색했다. 첫 소논문을 작성하면서 느낀 것은 지식의 폭이 얇다는, 당연하면서도 빠져린 성찰이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소주제별 공부는 어느 정도 하였지만, 세 주제를 일관된 흐름으로 구성할 수 있는 통찰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향후 과제는 아래와 같다. 이번 논문에서 넓게 살펴본 내용을 세분화해서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각 주제를 연결 짓는 안목을 기르고자 한다. 먼저, 교육학, 인지과학, 문화연구에 대한 각각의 공부와 더불어 셋을 연결 짓는 통섭적 안목을 꾸준히 기르고 싶다. 특히 교육학에 있어서는 비고츠키의 비판적 교육학, 복잡성 교육과 생태주의 교육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 더불어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를 교육의 현장에 접목해 지속적인 교육적 실

81) 기본소득당 홈페이지, <https://www.basicincomeparty.kr/basicincome/>

82) 노동당 홈페이지, http://www.laborparty.kr/bd_member/1777178

83) 같은 홈페이지.

84) 위의 책, 27쪽 재인용.

힘을 하고자 한다. 학생들과의 생활 속에서의 소통, 보호자, 동료 교사와의 연결고리를 다양하게 시도하며 배워나가고자 한다. 꾸준히 깊이 있게, 즐겁게 공부하고 실천하고자 다짐해본다.

글을 쓰는 과정은 내 안에 있던 거대한 세계에 대한 막연한 노예의식과 패배감을 씻어낼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하였다. 거시체계가 변하지 않은 한, 내 앞의 현실을 바꾼들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와 같은 비관적 허무주의에 종종 빠지곤 하는 나의 습관적 생각의 고리를 깊이 반성하는 시간이었다. 나에 대한 혁명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내가 마주한 현실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교육노동자로서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인가. 단편적인 교육이 아닌 미시적 수준에서 거시적 수준까지 걸쳐져 있는 문화, 교육, 주체, 사회의 역동적이고도 프렉탈적 관계망을 인식하고 각 상황에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균열을 내는 것이겠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코윈의 실현은 어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에.

참고문헌

- ▶ 심광현, 「비고츠키와 공감의 생태학: 근접발달, 카오스 이론, 거울뉴런, 발달생태학」, 『유아 교육문화 다시 보기』, 한국어린이교육문화비평학회 2012년 연차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3.
- ▶ 심광현, 「문화연구와 협력교육: 레이먼드 윌리엄즈, 비고츠키, 인지과학의 만남」, 제1회 교육문화연구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3.
- ▶ 심광현, 「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의 설립이념과 협력교육」, 2020-1쿼터 <협동조합론> 제1강 총론, 2020.
- ▶ 심광현/노명우/강정석, 『미래교육의 열쇠, 창의적 문화교육』, 살림터, 2012.
- ▶ Brent Davis, 심임섭 역, 『구성주의를 넘어선 복잡성 교육과 생태주의 교육의 계보학』, 씨아이알, 2014.
- ▶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2015.
- ▶ 배주경 외 6인,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실행 모니터링 연구(Ⅱ): 초·중학교 모니터링 및 결과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9.
- ▶ 이주연 외 4인, 『혁신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9.
- ▶ 김훈석, <무엇이 학교를 바꾸는가 1부 학교 변화의 열쇠>, 다크프라임, EBS, 2020.